

하마스 “6주 휴전안 검토...전쟁 종료가 최우선”

파리 회의서 인질·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등 휴전안 검토 밝혀 이스라엘 네타냐후 “가자지구 철군 안하고 보안사범 석방도 불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6주간의 일시 휴전과 인질·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을 골자로 하는 휴전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같은 휴전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을 중재하는 미국, 카타르,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지난 28~29일 프랑스 파리 회의에서 합의한 것으로, 앞

서 하마스 측에 전달됐다. 하마스 정치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에 정치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스라엘·카타르·이집트 등 4개국 회의에서 제안한 휴전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며 공격을 멈추는 것을 우선으로 해 대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를 촉

구하면서 하마스는 교전의 “전면적인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진지한 제안에도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기존 요구를 반복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등이 제안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합의의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평가했다. 중재자들은 합의가 이뤄지면 6주간의 교전 중단 기간을 영구 휴전을 위한 작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은 FT에 전했다. 의명을 요구한 당국자들은 이번 논의는 아직 초

기 단계에 있으며 하마스가 이 같은 제안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동의할 경우 해결해야 할 세부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는 큰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요르단강 서안 열리에 있는 군사학교에서 하니에 국장의 발언에 반박하듯이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수천 명의 테러범을 풀어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국내적으로는 남은 인질을 조속히 데려오라는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고 국제사회

에서는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끝내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주도하는 연정 안에서는 전쟁을 끝내거나 중범죄 혐의가 있는 팔레스타인인을 석방하는 등의 합의를 하마스와의 할 경우 연정을 무너뜨리겠다는 위협을 받고 있다.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침투해 이스라엘인 1천200명 정도를 살해하고 240여명을 근거리인 가자지구로 인질로 끌고 갔다. 인질 105명은 작년 11월 일시 휴전 때 풀려났고 일부는 숨겨 하마스가 현재 억류한 인질은 130명 정도로 파악된다. /연합뉴스



프랑스 농민들 ‘파리 봉쇄’ 시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인근 A35 고속도로를 농민들이 트랙터로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농업정책에 반대하는 프랑스 농민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파리 봉쇄’ 시위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홍해 사태에 호주 가축선 한 달째 바다서 ‘대기’

소·양 1만5000여마리 호주 복귀...검역 문제로 바다서 기다려

홍해 무역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동으로 가려던 호주산 소·양 1만5000여마리가 약 한 달째 바다에서 대기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MV바하자호는 요르단으로 가기 위해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주 프리먼틀에서 출발했다. 이 배에는 중동으로 수출하려는 1만5천마리가 넘는 살아있는 소와 양이 실렸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홍해를 지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 MV바하자호에 항해 중단 명령을 내렸고 수출선은 지난 29일 WA주 앞바다에 도착했다. 문제는 배가 호주로 돌아왔지만 배 안에 있는 가축들은 땅으로 쉽게 내려올 수 없다는 점이다. 배 안 가축은 호주산이지만 일단 호주를 떠났던 동물들이 만큼 해외에서 들어오는 다른 동물처럼 엄격한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축산업 강국인 호주는 청정 소고기와 양고기 이미

지를 지키기 위해 매우 엄격하게 검역을 실시한다. 이 때문에 MV바하자호는 처음 출발했던 프리먼틀 항구에서 약 10km 떨어진 바다 위에 정박한 채 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가축들이 배 안에서 폭염 속에 노출돼 있다며 빨리 배에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반구의 호주는 현재 여름을 보내고 있으며 특히 서부지역은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을 만큼 뜨겁다. 이에 WA주 정부는 연방정부와 협조해 가축들이 배에서 내려오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가축 격리 시설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로저 쿡 WA주 총리는 배 안의 동물 복지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바다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우리는 연방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살아있는 가축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합뉴스

‘정치자금서 법률비용 조달’ 소송 끊이지 않는 트럼프

600억원 지출신고

각종 송사에 휘말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정치활동위원회(PAC)가 모은 자금 중 5000만 달러(약 665억 원)를 법률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모금 PAC은 이 같은 내용의 지출신고서를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제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개입 의혹과 기밀문서 불법유출 등 4개 사건에서 91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또한 뉴욕에서는 28년 전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2개의 민사소송에 휘말렸고, 트럼프 그룹의 자산 부풀리기 의혹으로도 피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지는 소송 전에 드는 비용을 유권자의 모금 등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으로 틀어막은 것이다. NYT는 법률비용에 사용한 5000만 달러가 미국 기준으로도 막대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일한 경쟁자로 남은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의 경우 지난해 모금한 전체 정치자금 5천만 달러 수준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PAC 중 법률비

용을 지불하는 금고로 사용되는 단체는 ‘세이브 아메리카’다. 이 단체는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금융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다른 PAC이 모금한 정치자금의 10%를 세이브 아메리카에 이체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 중 하나인 MAGA는 지난해 하반기에 3천만 달러(약 399억 원)의 자금을 세이브 아메리카에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바이든, 플로리다서 “트럼프 또 루저될 것” 공격

트럼프 직접 거명하며 공세 ‘고삐’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방 격인 플로리다를 찾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공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주피터에서 진행된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여러분이 내가 대통령인 이유이며 도널드 트럼프가 패배한 대통령인 이유”라면서 “우리는 그를 또 패배자(loser)로 만들 것이며 여러분이 그 이유”라고 밝혔다. 백악관 풀기단이 전했다. 그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가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라”라면서 “우리는 미국 소비자들이 경

제에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를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붕괴(crash)한다면 자신이 취임하기 전인 1년 내에 하길 바란다고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거론하면서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는 미국 경제가 정말로 강하고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강한 경제)이 미국에는 좋지만, 그에게 정치적으로 나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미국 대공황 때 대통령을 지낸 허버트 후버 전 대통령에 빗대 “도널드 허버트 후버 트럼프”라고 부른 뒤 “그는 후버를 제외하고 취임 때보다 퇴임 때 일자리가 준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인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